

[시티 & 피처]

광주 첫 특급호텔 '독특한 외관'

20일 착공... 6星級 200실 규모

2013 하계U대회 유치 도움 기대



오는 20일 착공하게 될 광주 첫 특급호텔의 투시도. 2010년 10월 준공되며 10층에 200실 규모다.

호텔에는 연회장, 비즈니스 센터, 교육실, 휴트니스 시설, 한·양식당, 사우나 등의 시설이 들어서며 총 783

객실 외벽은 평면적인 사면체 등을 피하고 다양한 형태의 각(角)이 지도

록 함으로써 랜드마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이나믹하고 불규칙한 창호와 조형물 등을 통해 차별화를 시도했으며 빛의 도시답게 화려한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 색다른 불거리도 제공할 계획이다.

호텔 설계 컨소시엄에 참여한 플래닝코리아 측에 따르면 이 호텔은 6성급 호텔인가를 목표로 설계됐으며 특히 세계 어느 호텔과도 닮지 않은 독특한 외관을 갖도록 했다는 것.

호텔 시행사인 AMJ측은 외국 유명 호텔체인과 협력해 명칭 사용과 운영 등 고급화를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특급호텔 건립을 조건으로 용도변경이란 인센티브를 제공한 아파트는 특급호텔 주변에 중·대형 367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아파트 건설이라는 인센티브는 지역 여건상 특급호텔 영업만으로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 호텔 운영에 따른 손실 보전차원에서 부여됐으나 일부 시민단체들이 특히 반발하기도 했다.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11회 광주시 건축상

광주시는 제11회 건축상 수상작으로 (주)광주공간 건축사사무소 조성호 건축사가 설계한 'GS 빌딩' 등 6개 작품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상 수상작인 'GS 빌딩' (서구 치평동)은 좁은 대지에도 불구하고 신도시의 특성을 고려, 간결하고 단순·명쾌하면서도 조형과 생태적 요소를 도입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은상에는 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한남수 건축사가 설계한 서구 치평동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금상 'GS 빌딩'

은상 '住公사옥'

사옥'과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김용미 건축사가 설계한 남구 송하동 '학교법인 송원학원' 건축물이 각각 선정됐다.

동상에는 (주)유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오금열 건축사가 설계한 북구 용봉동의 '광주시립미술관', (주)지에이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이창율팀이 공동설계한 '5·18추모관', 백두건축사사무소 강연심 건축사가 설계한 북구 망월동 '이씨 주택'이 각각 선정됐다.

동상에는 (주)유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오금열 건축사가 설계한 북구 용봉동의 '광주시립미술관', (주)지에이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이창율팀이 공동설계한 '5·18추모관', 백두건축사사무소 강연심 건축사가 설계한 북구 망월동 '이씨 주택'이 각각 선정됐다.

건축상은 시 건축조례에 의해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해 건축사와 건축주에게 시상하는 시책이다.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내 각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처리가 '고비용 저효율 체제'여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위생매립장에서 청소차가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구청 생활폐기물 처리비

'고비용 저효율 구조' 개선해야

대구 남구의 2배

■ 생활폐기물 t당 처리비용	
지자체	비용(원)
광주 동구	220,741
광주 서구	172,682
광주 남구	124,435
광주 북구	160,506
광주 팔산구	206,589
대구 남구	82,460

광주시 5개 구청의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이 대구시 남구에 비해 2배가량 많이 드는 등 '고비용 저효율 구조'여서 이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표 참고〉

'참여자치21 예산감시센터'(소장 오미덕)는 17일 '광주시 생활폐기물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자료를 통해 대구시 남구 생활폐기물 t당 처리 비용(2006년 기준)이 8만2천460 원인데 비해 광주지역은 ▲동구 22만741원 ▲서구 17만2천682원 ▲남구 12만4천432원 ▲북구 16만506원 ▲광산구 20만6천589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대구시 남구가 지난해 4만3천원을 처리하면서 34억여원을 썼다. 반면 광주지역의 자치구별 쓰레기 처리량과 처리비용은 각각 ▲동구 2만7천여 t·60억여원 ▲서구 4만여t·70억여원 ▲남구 44만여t·55억여원 ▲북구 5만5천여t·89억여원 ▲광산 3만7천여t·77억여원 등이다.

또 민간 위탁업체 입원·사무실 지원의 금료가 포함된 일반관리비까지 지자체가 지급해 주는 '준 직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예산 부담이 더욱

큰 것으로 지적됐다. 올해에만 광주시 5개 구청은 위탁업체 정비원·사무원 41명의 인건비로 18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썼다.

광주시 5개 구청의 생활쓰레기 처리 예산은 2005년 336억여원, 2006년 353억여원, 2007년 361억여원으로

반면 대구시 남구는 지난 2003년부

터 철저한 원가 계산을 통해 t당 처리

비용만을업체에 주는 't당 단가제'를

도입해 처리 비용을 줄인 것으로 알

려졌다.

오미덕 소장은 "t당 단가제"나 쓰

레기 봉투 판매를 통해 업체가 알아

서 운영하는 '독립체산제' 등으로 전

환하면 낭비되는 예산을 절반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양동시장 민자 재개발 등 5건 선정

市, 제안 사업안 심사

광주시는 최근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올 하반기 시민과 공무원들이 제안한 사업안을 심사한 결과, 시의 주요 시책에 참고하거나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수준의 제안 5건을 '올해의 Bright 5'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가 선정한 사업안은 ▲양동

시장 민자(民資) 재개발 ▲소태

광주시, 光엑스포 추진 전담 법인 설립

전 계곡수 광주천 유입 방안 ▲지하철 역사 내 모유 수유방 설치 ▲광주 빛고을 로봇 페스티벌 개최 ▲영문 동명(洞名)의 홈페이지 개설 등이다.

광주시는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 능률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홈페이지, 페스, 문서 등으로 접수, 연 두 차례 체택해 시상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엑스포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행사장 부지조성, 전시시설 설치와 운영관리, 조직운영, 재원의 조달과 집행 역할을 맡게 된

또 엑스포 관련 문화예술행사 등을 추진하고 엑스포 홍보, 부대 사업 시행, 유관기관의 업무 협조 등도 담당한다.

시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며 효율적 법안 운영을 위해 관련 공무원도 과제한다. 내년 2월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2008 새해 정동진 애들의 전세일자

▶ 유통일: 12월 15일(화) ~ 12월 19일(토)

▶ 주제: 새해 정동진 애들의 전세일자

▶ 주제: 새해 정동진 애들의 전세일자